아내는 원수, 조카는 동지(?)

(창14:1~16)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내는 원수, 조카는 동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아내는 원수, 조카는 동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 북부의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네 왕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가나안 땅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주변의 다섯 왕이 또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4개 연합군이 있는 북부 메소포타미아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초승달처럼 가나안 땅의 북부까지 이어지는데, 그 북부 지역 중에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맹주로 있는데 남쪽 사해 지방에 있는 왕들이 12년 동안 신하노릇을 했어요. 공물을 바치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해 남쪽의 다섯 왕국의 연합군이 대패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소돔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돔 땅은 롯이 아브람과 헤어져서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가서 살게 된 땅 아닙니까? 롯이 북부 네 왕국의 연합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었는데, 이 소식을 누군가가 아브람에게 와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쫓아가는데 집에서 데리고 있던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300명이 넘는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아브람의 재산이 굉장히 커졌지요.
그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쪽의 단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남쪽에 살고 있는데, 북쪽 끝까지 쫓아가서 318명이라고 해봐야 가신일 뿐이고 전쟁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

은 군사들도 아닙니다. 유목민이었으니까 가축을 돌보고 집안을 경계하는 파수꾼 정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잡혀갔던 부녀자들과 조카 롯과 모든 재산과 군수물자를 다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아! 정말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랍니까?
12장부터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브람에 대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제단 쌓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냥 때를 가리지 않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분입니다.
제단을 쌓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오합지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모습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애굽 왕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 사래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내 사래가 너무 예쁘니까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서 사래에게 여동생으로 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 사건 후에 오늘 본문의 롯의 사건이 이어지는 것인데, 사래는 이방 왕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발적으로 들여보낼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조카 롯은 4개국 연합군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가나안 북부까지 쫓아가는 집요함을 보이면서, 관운장이나 조자룡이 된 것처럼 용맹을 떨치면서 그들을 파하고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람일 수가 없지요.
두 사건을 겉으로만 보자면 아내 사래는 도대체 아브람에게 어떤 존재이었기에 바로 왕에게 쉽게 내줄 마음의 준비까지 해버리고, 조카 롯은 아브람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승산도 없는 싸움을 걸어서 이기는 용맹함과 능력을 보여서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면 웬만한 왕들에게서도 사래를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12장, 13장에 사래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서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비교하라는 거예요.
왜 아브람이 그랬는지를 알아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사래는 미리 내놓을 생각을 하고, 조카 롯은 잡혀가는 것을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가서 데

려왔느냐?
대체 조카 롯과 아내인 사래가 아브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들이었느냐가 질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래를 내놓을 때에는 속없는 남자로 비겁해 보이고,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역시 속없는 사람, 무골호인(無骨好人)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가축들이 무엇을 먹고 살고, 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가 문제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조카에게 먼저 땅을 구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해야 마땅한 것이고, 롯도 삼촌이 먼저 땅을 고른다고 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래가 볼 때에는 참 속없는 남편이 아니었겠어요? 속없는 무골호인.
사래의 사건에는 속없는 비겁쟁이이고, 롯과 갈라서면서 분가할 때에는 속없는 무골호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용맹을 떨치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느냐?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사래는 여자이고 아내잖아요. 누가 봐도 욕심을 낼만큼 지독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람의 이야기가 27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을 쭉 살펴보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자기를 핍박할 때에 남편에게 뭐라고 한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남편을 믿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순종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처럼 남편을 앞서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고된 방랑자 생활에서 불평 한마디 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에도 사라의 불평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외모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니 아브람이 얼마나 아내를 예뻐하고 사랑했겠는가 짐작이 가요. 그리고 애를 못 낳으니 아브람의 사래에 대한 마음은 더 애틋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를 못 낳아주는 것에 대해서 사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람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갖고 있는데…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사랑이고, 어쨌든지 이렇게 사랑하고 예뻐하는 대상이고, 돌보고 싶고 때로는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고 평생 같이 가야 하는 생의 반려자가 사래입니다.

그럼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람에게 동생 둘이 있었잖아요.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막내입니

다. 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겨서 아브람이 큰 아버지로서 잘 거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에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어진 마음으로 잘 돌보았던 조카고 형제애의 연장선상에서 대하는 관계였지만, 땅 분배의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분명히 골육의식은 있었지만, 아브람에게는 처음부터 롯이 언젠가 장성해서 자기의 집안을 이루고 나면 분가를 시켜야 하는 존재라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래와 비교해 볼 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내인 사래는 아브람의 마음이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조카인 롯은 마음에서 형에 대한 우애로 조카를 돌보고 있고, 아브람의 어진 성격상 롯을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이 사래처럼 빨려 들어가는 존재는 아니었고, 아브람의 마음을 염두에 둘 때에 언제나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아브람이 먼저 말을 꺼내서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브람에게 이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존재라고 해서 사래는 사래의 느낌대로 롯은 롯의 느낌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브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바람에 사래와 롯에 대한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아브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1등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관심대상으로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이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서 1등 되시기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래가 매일 아침 등장합니다. 잠에서 부시시 깨어나는 모습도 예쁘고, 밥을 지으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봐도 예쁘고, 이래 봐도 예쁘고 저래 봐도 예뻐요. 애를 못 낳는다고 끙끙거리니까 마음은 더 애틋해요. 더 빨려 들어가고 마음이 더 흡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1등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는 아브람에게 있어서 이제 사래는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에 있어서 능히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브람 마음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래가 너무 예쁘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워서 마음을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아내 사래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이 1등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절대로 기근을 피해서 불신앙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장, 13장에서 폐허라는 아이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벧엘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등지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세상을 등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조차도 등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이 땅의 약속까지도 등 뒤로 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마음이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쳐져버리고, 축복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밀려나므로 사래를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에게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셨는데, 그 앞 34-35절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가족끼리는 싸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족 간에는 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1등으로 마음에 모시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왜 가족과 원수가 되어야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1등으로만 관계를 맺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므로, 마음의 1등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이웃이 차지합니까? 원수가 차지합니까? 내 가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서는 자들은 내가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마음이 끌려들어가게 되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더라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

와 같은 가까운 자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의 1등자리를 놓고 싸우는 원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롯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날마다 제단을 쌓고 사는 아브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려고 하는 신앙의 열정과 마음에 대해서 롯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조카였고 이미 떠나갔으니까.
롯을 관계할 때의 관계는 아브람이 롯의 방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이 1등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람과 하나님이 묶였잖아요.
이 연합된 상태에서 롯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래를 볼 때에는 하나님과 사래가 라이벌 관계에 있으니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사래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뻐하게 되니까.
그러나 조카인 롯은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람이 하나 됨에 롯이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을 대하므로, 롯이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사래는 어떤 존재이고, 조카 롯은 아브람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이렇게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려다보니 사래는 원수처럼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래를 아내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래를 아브람의 아내 자리에 굳건히 못 박아 두시지 않습니까?
재산도, 땅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마음에서 죽어버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롯은 반대로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된 뒤에 상대를 하게 되니 어떤 대상이 되느냐? 아브람이 총이라고 한다면 롯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의 탄환을 쏘는 과녁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기 위해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속없는 무골호인처럼 자기를 죽이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속없는 비겁쟁이처럼 보이며 아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브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4개국 연합군을 간단하게 해치워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능력으로 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 마음이 끌려 들어가도록 사랑하게 되는 존재에 대해서는 십자가 제단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로 어제 말씀 나누었던 폐허 경제학이었어요. 재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뺏길만한 사업이고, 내 마음을 뺏길만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 제단에서 죽고 그것들을 등 뒤로 돌리면서 폐허처럼 내버려두고 손 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 지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완전히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이제 직장에 나가서 동료를 보고, 활동 과제 같은 것들을 봅니다.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서 이것들을 보니까 그 대상과 사랑과 과제와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능력과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람과 롯과 사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아브람의 이야기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다보면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재산이나 사업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려고.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괄호로 묶이게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제단에서 죽으므로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소원이 다 제로가 됩니다.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고 뜻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제로가 되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다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람이 하나가 됐는데 아브람의 계획과 아브람의 뜻과 아브람의 능력 제로예요.

이 롯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는데, 318명 데리고 쫓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쫓아가서 다 파하고 롯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여쁜 사래가 더 마음에 끌리는 존재이므로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와서 또 제단을 쌓고 내 마음의 1등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식인 경우에는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땅이 마음을 빼앗아 가니까 마음에서 죽고 롯에게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등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도록 이 땅에서 기회가 되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 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유전자를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그 분에게서 보여 졌던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쌓던 아브람의 제단이 영원한 제단이고, 더 강력한 제단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린 나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사래와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을 잡아끄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라이벌인 그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된 뒤에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 그들을 과녁 삼아 적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